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지역사회와 노인 섬기는 일 앞장 ... “고성군 열심히 사는 젊은이 많아 미래 밝다”

‘고성장수대학’ 운영 최진묵 목사

“지역의 어르신들은 많은 역경 속에서 오늘날의 고성군을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저 또한 정년퇴임 후에도 교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인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아름다운 고성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일조할 생각입니다.”

고성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고성감리교회 최진묵 담임목사(68세, 사진)가 5년전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성장수대학’을 위탁운영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는 최 목사는 충남 태안 출생으로 1971년 현내면 명파리 명파감리교회 목사로 부임한 것을 인연으로 현재까지 고성지역에서 40여년간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고성지역에서는 목회 경력이 가장 많다.

협성신학대학 과정을 마치고 젊은 시절

현역 군복무를 현내면 명파리 부근에서 하면서 명파감리교회를 섬겼던 최 목사는 군제대후 명파리가 고향인 부인을 만나 결혼한 뒤 명파감리교회 목사로 첫 목회활동을 시작했다.

1971년 명파감리교회 목사로 부임한 그는 당시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8년간 성전건축을 이루고 난 뒤, 양양 현남교회에서도 13년간 목회생활을 하며 교회건축과 부흥을 위해 헌신했다.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에만 몰두하고 헌신했던 최 목사에게도 목회활동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성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3개월만인 1993년 1월 폭설로 인해 교회가 붕괴되는 시련을 맞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불행으로 예배당이 없어진 교회는 일반주택을 월세로 얻어

8개월간 최목사와 50여명의 성도가 눈물어린 기도과 헌신적인 정성으로 1994년 오늘날의 고성감리교회가 지어진 것이다.

최목사는 “40여년의 목회생활 중 그 당사가 가장 힘들었다”며 “하나님은 할려고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신념과 게으른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고 부지런한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목사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22절을 꼽았다.



고성감리교회 담임목사직과 함께 고성경찰서 경목실장,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 등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는 “고성군이 젊은 세대들이 적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고성군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밝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고성지역 두번째 ‘명궁’ 지회영씨

“국궁만큼 좋은 운동 없는 것 같다”

“갖가지 운동을 다해봤지만 궁도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동은 체력단련위주지만, 궁도는 체력단련은 기본이고 정신집중과 심신수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최고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와 해변보트운행을 하고 있는 지회영씨(39세, 사진)는 고성에서 두 번째로 국궁 ‘명궁’이라 불리우게 됐다.



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영주 충무정 궁도 경기장에서 열린 제121회 전국남녀 궁도 승단대회에서 5단을 따냈다.

국민생활체육 고성군 궁도연합회 ‘수성정(사투 김영길) 회원인 지씨는 2008년에 입문해 2009년 1~2단, 2010년 3~4단을 거쳐 3년만에 5단을 따내 30년이상 운동을 해도 되기 힘든 명궁자리에 고성군에서 최단 기간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국궁은 1단부터 4단까지는 개량궁으로 심사하고 5단부터 9단까지는 각궁(활)과 죽시(화살)로 심사한다.

지씨는 명태덕장을 경영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덕장일을 돕다

보니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됐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때는 현내면 마을 씨름대회에서 건장한 성인남성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정도였다. 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육상 원반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관동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축구, 족구, 골프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했으나 국궁을 접하고 나서는 국궁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씨는 “일반인들이 국궁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함께 운동 할 수 있는 동호인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국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22사단 ‘환경 우수부대’ 선정

민북지역 산림복원 노력 ... 국방부장관 부대표창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지난 1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친환경 부대관리,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 우수부대’로 선정됐다.

22사단은 ‘21세기 친환경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부대’라는 부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번 환경 우수부대 국방부장관 부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22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민북지역의 산림복원사업과 황폐지에 대한 식목행사를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유류절약을 위해 출퇴근버스 이용, 승용차 5부제 및 카풀,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제10야전군사령관이 육군 제22보병사단장에게 환경 우수부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대리수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절전형 멀티탭 2,712개를 설치해 사무실 부재시에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고, 가로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정해진 시간에 소등되도록 했다. 아울러 할로겐등과 백열전구를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달 200여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페수처리시설 신·개축, 토양오염복원공사, 기동장비 매연측정 등을 지속 시행하고, 민·관·군·기업 기후변화협약 체결, 훈련지역 자연정화, 외래식물 제거, 야생동물 보호활동, 산림복원사업 등 지역 환경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